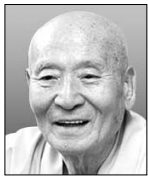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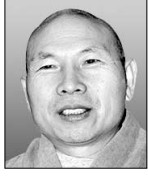


일주문



정토사 낙성법회
서울 정토사 회주 설산 스님은 11월 11일 경내에서 정토사 1차 불사 회향을 기념해 前 합천 해인사 주지 연공 스님 등을 초청해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평화포럼 개최
한국종교연합 공동대표 진월 스님은 11월 16일 오후 6시 서울 안국동 참여 연대 달게비(옛 느티나무)에서 평화포럼을 개최한다. (02)2264-8260



'북학 핵심철...' 주제 토론회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11월 15일 오후 1시 프레젠테이션 국제회의장에서 '북학 핵심철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생명나눔 광주·전남 본부장 취임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 지역본부장 현지 스님은 11월 17일 오후 4시 30분 광주 신양파크 연회장에서 제4대 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한다.



원각사서 청정운동 순회법회
대한불교진흥원 송석구 이사는 11월 21일 오전 11시 광주 원각사에서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주제로 청정운동 광주전남 순회법회를 개최한다.



수험생 건강관리 강좌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이석현 의원원은 11월 18일 오후 3시 일산불교병원 5층 대강당에서 수험생 건강관리를 위한 한방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동산반야회 창립 24주년 법회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은 11월 11일 동산불교회관에서 무진장 스님을 초청해 창립 24주년 기념법회 및 불교상담특강을 진행했다.



한국불교신문 사장에
작가인 차길진 법사가 11월 9일 한국불교 태고종 기관지인 '한국불교신문' 및 자매지인 '월간불교' 사장에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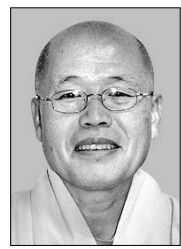
인사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 △부주지 겸 총무국장 의연 △교무 재연 △재무 원광 △기획 만당 △호법 본묵 △사회 법선 스님

화족
강우방 일한한국미술사연구원장 장녀 소연씨(홍익대 겸임교수·분지)에 '불화속의 명장면' 연재(중)가 11월 17일 오후 6시 서울 63빌딩 3층 코스모스에서 이은우씨와 화족을 받는다.
유용오 주간불교신문 기자는 11월 19일 오전 11시 30분 성균관대학교 유림회관 훈인의 집 명륜당에서 우승미씨와 화족을 받는다.

"해외특별교구 설립이 목표"

조계종 미주승가회 상임회장 도현 스님

"조계종을 대표하는 미주승가기구로서 해외특별교구 출범의 모태를 만들겠습니다."
10월 16일 미국 LA 관음사에서 열린 조계종 미주승가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상임회장에 취임한 도현 스님(하와이 무량사 주지·사진)은 "앞으로 현지 포교를 이끌 '중단 대표기구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미주 50개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사찰들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조계종 현지 비영리법인체'를 구성하려고 현지 변호사를 선임 중에 있고, 52개 사찰이 참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를 위해 도현 스님은 첫 사업으로 '미주사암주지 연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봉축 행사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승려재교육을 통한 승가위상 강화에도 전력을 기울인다. 조직도 캐나다까지 포함해 북미지역 사찰의 참여를 유도해낼 방침이다.

"미주승가회의 궁극 목표는 해외특별교구 설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본사구비조건을 갖추면, 총무원과 협의과정을 거쳐 곧바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철우 기자 in-gar@buddhapia.com

"내실 다지기에 지혜 모아야"

'파라미타' 회장직 물러난 원택 스님

"밖에서 바라본 파라미타와 회장직을 맡으며 안에서 본 파라미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조직규모, 사업내용 등 무엇 하나 전국조직의 위상에 걸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3년간 밖으로 키워왔으니, 앞으로는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이하 파라미타) 3대 회장 원택 스님(사진)은 2003년 회장직을 맡은 이후 전국에 흩어진 파라미타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사업을 확대시행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재임기간 동안 서울시 청소년문화존 사업을 비롯해 한·중·일 청소년문화교류, 백두산 탐방 등 구체적인 해외교류 사업도 실시했다. 원택 스님은 10월 31일자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3년 10개월 만의 일이다.

원택 스님은 얼마 전 출범한 조계종 어린이·청소년포교팀과 관련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치는 한편, 지적도 있지 않았다.

"개별 단체로서 파라미타가 접근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접근과 전략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이은비 기자 renyw@buddhapia.com

관문사 제5대 주지 정산 스님 취임식



관문사 제5대 주지에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취임했다. 11월 5일 4층 옥불보전에서 열린 '제4·5대 주지 이·취임식'에는 서주석 청와대 불자회장, 성운갑 공무원불자회장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산 스님은 "신뢰받는 사찰, 수행과 계행이 청정한 사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나눔본부 '생명나눔의 날' 음악회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는 11월 4일 동국대 강강당에서 진각종 회장 통리원장,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생명나눔의 날' 자선음악회를 열었다. 행사는 故 법장 스님의 뜻을 기려 난치성 혈액암으로 고통 받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태고보우국사...' 출판기념법회



(사)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무공·오른쪽)은 11월 9일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태고보우국사 종지종풍과 수행법'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등 3백여 명이 동참한 법회에서 무공 스님은 "불자들이 보우국사의 본원정지를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문화교류재단, 인도박물관 개원



아시아문화교류재단(이사장 현장)은 11월 3일 광주 윤립동에 인도박물관, 인도문화원을 개설하고 개원식 및 기념 공연을 펼쳤다. 인도 대사관과 아시아 문화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공연에는 인도국립무용단 특출한 그룹이 초청돼 인도전통무용이 소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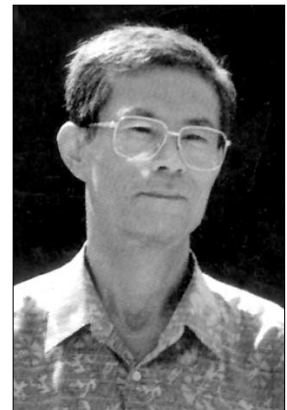
제11회 운주문화축제 열려



'제11회 운주문화축제'가 10월 28~29일 양일간 화순 운주사(주지 정행) 일원에서 펼쳐졌다. '신호·인연·만남-인간을 향한 순백의 어우름'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11번째 석불세우기, 운주마당극 '천불천탑', 탁본·단청 체험,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연구·수행 바탕으로 통불교적 이론 세울 터"

퇴임강연 가진 동국대 서윤길 교수



"밀교학 연구는 물론 수행과 실천을 바탕으로 한 통불교적인 불교학 연구에 더욱 매진해 이에 대한 이론체계를 정리하며 남은 시간을 회향하겠습니다."

한국의 밀교학 연구의 선구자 동국대 서윤길 교수(사진)는 11월 13일 서울 장충동 엠버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퇴임강연을 열었다.

퇴임강연에서 서 교수는 후배 불교학자들에게 "불교에서 말하는 참교육은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살행을 통한 자비의 실천을 몸소 보여 주는 것"이라며 "지식과 인격이 조화를 이룬 참 불자교수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교수는 또 "모교인 동국대에서 제자들과 함께 불교학 연구에 매진하고 싶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어 더 없이 아쉽고, 그동안 부진한 실력으로 학생들과 수업에 임했던 것이 부끄럽다"고 회고했다.

덧붙여 "퇴임 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참선과 기도 정신에 매진하고 싶다"며 "체험과 실천을 통한 '통불교적인 수행법' 연구 활동에

전념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최근 퇴임을 앞두고 중관, 유식, 보살사상 등 대승불교의 사상적 전통에 입각한 밀교학 연구의 결정판 <한국밀교사상사>와 선, 천태, 미륵, 정토 등 다양한 한국불교사상을 개괄한 <한국불교사상>을 펴냈다.

밀교학 분야에서 서 교수의 연구는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

르기까지 광범위한 시대를 관통하고 있으며 <삼국유사> 연구를 통해 밀교학의 영역을 심화시키는 한편 한국 밀교가 화엄, 천태, 정토 등과 융합하는 모습을 규명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서 교수의 신라의 사리탑 신앙을 비롯해 도선의 비보사상, 고려와 조선의 제석신앙, 인왕신앙, 구유신앙, 능엄도량 등의 연구는 불교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형성에 밀교가 끼친 영향과 위상이 얼마나 폭넓고 깊은 것인지를 잘 보여줬다.

서윤길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및 대학원장, 불교대학장, 중앙도서관장, 불교문화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고려밀교사상사연구> <한국밀교사상사연구> <밀교사상사개론> <고려의 건국과 밀교적 이념> <신라 의림전사의 밀교사상> <밀교학적 위상과 그 특성> <도선비보사상의 심원> <불교학 개론> 등이 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부처님 당시 경전 읽기 한글 니까야 독송회 회원 모집
전통따주기지지도사 강좌 (2박3일) 안내
1. 전통따주기관
2. 따주기의 특징
3. 따주기 활용
4.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5. 강좌 인원
6. 강 좌 일
7. 특전
8. 강좌문의
한국 전통 따주기 연구원